

# 『黃帝內經』에 나타난 婦人科에 關한 文獻考察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婦人科學教室

김혜원·조정훈·장준복·이경섭

## A investigation on OB&GY in 『Hwang Jae Nai Kyung』

Dept. of Oriental OB&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Kim HyeWon·Cho JungHoon·Jang JunBock·Lee KyungSub

『Hwang Jae Nai Kyung』 is the greatest and oldest book on oriental medicine. It contains all the basic theories of oriental medicine.

OB&GY in oriental medicine have been developed on the foundation of 『Hwang Jae Nai Kyung』. However no intensive gynecological studies on 『Hwang Jae Nai Kyung』 has been performed to this day. Hereupon, an investigation on OB&GY in Hwang Jae Nai Kyung is done for future theory and clinical study. The phrases that contain OB&GY are totally 24 in the chapter 16 of Somun and total of 9 in the chapter 8 of Youngchu. Phrases dealing with pregnancy were total of 9, which was the most frequent. Also statements about amenorrhea, lower abdominal pain, bleeding, discharge, menstruation, jangdam, sukga, postpartum, infertility were found.

Hence, more studies of OB&GY in 『Hwang Jae Nai Kyung』 is needed in order to verify and apply the theories stated in 『Hwang Jae Nai Kyung』.

Key Words : 『Hwang Jae Nai Kyung』, OB&GY, amenorrhea.

### I. 緒論

黃帝內經은 현재까지 존재하는 醫學書籍 중에

서 馬王堆에서 출토된 醫書를 제외하고는 가장 그 연대가 빠른 것으로 黃帝內經의 醫學理論은 현재까지도 韓醫學을 구성하고 있는 基礎 理論의 근거가 된다.<sup>1)</sup>

\* 교신저자 : 이경섭,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婦人科學教室, 02-3457-9002.

歷代 醫家들은 醫인이 되는 첫 단계로 먼저 黃帝內經을 精讀하였고 醫療에 종사하기 이전에

黃帝內經의 思想과 原理부터 인식을 한 후에 醫者가 되었다고 한다.<sup>2)</sup>

오늘날 韓方婦人科學은 黃帝內經을 시작으로 歷代 醫家들을 거쳐 그 理論과 臨床의인 내용이 풍부해지고 현대에 들어서는 西洋醫學의인 지식까지 더해져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韓醫學의 基礎理論書로 가장 근간이 되는 黃帝內經에 대한 研究는 없었다.

이에 저자는 黃帝內經에 나타난 婦人科에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는 것이 향후 文獻 研究와 臨床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본 研究를 시행하게 되었다.

## II. 調查對象과 研究方法

- 1) 重光補注黃帝內經素問<sup>3)</sup> 이라 命名된 것을 底本으로 한 原文을 調查對象으로 하였다
- 2) 女子, 婦人, 月事(不月), 崩, 胞(胞脈, 胞絡), 白淫, 帶下, 任脈, 衝任, 腸覃, 石瘕, 不妊, 乳子(乳), 懷子, 姪子(姪), 產, 胎, 帶脈, 疝瘕를 검색어로 사용하여 조사하였으며 검색된 조문 중 해당 검색어를 포함하고 있으나 부인과에 관련되지 않은 내용은 제외하였다.<sup>4)</sup>

## III. 本論

### 1. 生理

\* 梁代의 全元起가 註한 內經訓解 8卷 71篇을 底本으로 하여 唐代의 王冰이 24卷 81篇으로 改篇하면서 註하여 補注黃帝內經素問이라 불렀던 것을 宋代의 高保衡, 林億 등이 校正한후 孫兆가 이를 다시 正誤하여 모두 6000여 군대를 고친 것을 新校正, 즉 重光補注黃帝內經素問이라고 命名한다.

\*\* 胞로 檢索된 條文중에서 胞가 膀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였고 疝瘕로 檢索된 條文중에서 小便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하였다.

『素問·上古天真論篇』

帝曰：人年老而無子者，材力盡耶。將天數然也。岐伯曰：女子七歲，腎氣盛，齒更髮長；二七而天癸至，任脈通，太沖脈盛，月事以時下，故有子；三七，腎氣平均，故真牙生而長極；四七，筋骨堅，髮長極，身體盛壯；五七，陽明脈衰，面始焦，髮始墮；六七，三陽脈衰於上，面皆焦，髮始白；七七，任脈虛，太衝脈衰少，天癸竭，地道不通，故形壞而無子也。

『素問·五藏別論篇』

腦髓骨脈膽女子胞，此六者地氣之所生也，皆藏於陰而象於地，故藏而不瀉，名曰奇恒之府。

### 2. 妊娠

『素問·腹中論篇』

何以知懷子之且生也。岐伯曰：身有病而無邪脈也。

『素問·平人氣象論篇』

婦人手少陰脈動甚者，姪子也。

『靈樞·論疾診尺』

女子手少陰脈動甚者妊子。

『素問·陰陽別論篇』

陰搏陽別謂之有子。陰陽虛腸澀死。陽加於陰謂之汗。陰虛陽搏謂之崩。

『素問·六元正紀大論篇』

黃帝問曰：婦人重身，毒之何如。岐伯曰：有故無殞，亦無殞也。帝曰：願聞其故，何謂也。岐伯曰：大積大聚，其可犯也，衰其大半而止，過者死。

『素問·奇病論篇』

黃帝問曰：人有重身，九月而瘖，此爲何也。岐伯對曰：胞之絡脈絕也。帝曰：何以言之。岐伯曰：胞絡者，繫於腎，少陰之脈，貫腎繫舌本，故不能言。帝曰：治之奈何。岐伯曰：無治也，當十月復。刺法

曰：無損不足，益有餘，以成其疹，然後調之。所謂無損不足者，身羸瘦，無用鑿石也；無益其有餘者，腹中有形而泄之，泄之則精出而病獨擅中，故曰疹成也。

『素問·五常政大論篇』

帝曰：歲有胎孕不育，治之不全，何氣使然。岐伯曰：六氣五類，有相勝制也，同者盛之，異者衰之，此天地之道，生化之常也。故厥陰司天，毛蟲靜，羽蟲育，介蟲不成，在泉，毛蟲育，介蟲耗，羽蟲不育。少陰司天，羽蟲靜，介蟲育，毛蟲不成，在泉，羽蟲育，介蟲耗不育。太陰司天，介蟲靜，鱗蟲育，羽蟲不成，在泉，介蟲育，鱗蟲不成。少陽司天，羽蟲靜，毛蟲育，介蟲不成，在泉，羽蟲育，介蟲耗，毛蟲不育。陽明司天，介蟲靜，羽蟲育，介蟲不成，在泉，介蟲育，毛蟲耗，羽蟲不成。太陽司天，鱗蟲靜，介蟲育，在泉，鱗蟲耗，介蟲不育。諸乘所不成之運，則甚也。故氣主有所制，歲立有所生，地氣制已勝，天氣制勝已，天制色，地制形，五類衰盛，各隨其氣之所宜也。故有胎孕不育，治之不全，此氣之常也。

『素問·六元正紀大論篇』

凡此太陽司天之政，氣化運行先天，天氣肅，地氣靜。寒臨太虛，陽氣不令，水土合德，上應辰星鎮星。其殺玄黃今，其政肅，其令徐。寒政大舉，澤無陽燄，則火發待時。少陽中治，時雨乃涯。止極雨散，還於太陰，雲朝北極，濕化乃布，澤流萬物。寒數于上，雷動于下，寒濕之氣，持於氣交，民病寒濕，發肌肉萎，足痿不收，濡瀉血溢。初之氣，地氣遷，氣乃大溫，草乃早榮，民乃厲，溫病乃作，身熱，頭痛，嘔吐，肌腠瘡瘍。二之氣，大涼反至，民乃慘，草乃遇寒，火氣遂抑，民病氣鬱中滿，寒乃始。三之氣，天政布，寒氣行，雨乃降，民病寒，反熱中，癰疽注下，心熱脊悶，不治者死。四之氣，風濕交爭，風化爲雨，乃長，乃化，乃成，民病大熱少氣，肌肉萎，足痿，注下赤白。五之氣，陽復化，草乃長，乃化，乃成，民乃舒。終之氣，地氣正，濕令行，陰凝太虛，埃昏郊野，民乃慘悽，寒風以至，反者孕乃死。

『素問·奇病論篇』

帝曰：人生而有病者，病名曰何，安所得之。岐伯曰：病名爲胎病，此得之在母腹中時，其母有所大驚，氣上而不下，精氣并居，故令子發爲巔疾也。

### 3. 無月經

『素問·陰陽別論篇』

二陽之病，發心脾，有不得隱曲，女子不月，其傳爲風消，其傳爲息貫者，死不治。

『素問·評熱病論篇』

月事不來者，胞脈閉也，胞脈者屬心而絡於胞中，今氣上迫肺，心氣不得下通，故月事不來也。

『素問·評熱病論篇』

帝曰：有病腎風者，面附瘵然壅，害於言，可刺不。岐伯曰：虛不當刺，不當刺而刺，後五日其氣必至。帝曰：其至何如。岐伯曰：至少氣時熱，時熱從胸背上至頭，汗出，手熱，口乾苦渴，小便黃，目下腫，腹中鳴，身重難以行，月事不來，煩而不能食，不能正偃，王偃則效，病名曰風水，論在刺法中。

『靈樞·邪氣藏府病形』

腎脈急甚爲骨癱疾，微急爲沈厥賈脈，足不收，不得前後。緩甚爲折脊，微緩爲洞，洞者，食不化，下隘還出。大甚爲陰痿，微大爲石水，起臍已下至小腹，腫腫然上至胃脘，死不治。小甚爲洞泄，微小爲消瘠。滑甚爲癰瘡，微滑爲骨疼，坐不能起，起則目無所見。澹甚爲大癰，微澹爲不月沈痔。

『素問·腹中論篇』

帝曰：有病脇支滿者，妨於食，病至則先聞腥臊臭，出清液，先唾血，四支清，目眩，時時前後血，病名爲何，何以得之。岐伯曰：病名血枯。此得之年少時，有所大脫血，若醉入房中，氣竭肝傷，故月事衰少不來也。帝曰：治之奈何。復以何術。岐伯曰：以四烏鯁骨一蔥茹二物并合之，丸以雀卵，大如小豆，以五丸爲後飯，飲以鮑魚汁，利腸中及傷肝也。

『靈樞·熱病』

男子如蠱，女子如蛆，身體腰脊如解，不欲飲食，先取湧泉見血，視跗上盛者，盡見血也。

#### 4. 崩漏

『素問·陰陽別論篇』

陰虛陽搏謂之崩。

『素問·六元正紀大論篇』

凡此少陽司天之政，氣化運行先天，天氣正，地氣擾，風乃暴舉，木偃沙飛，炎化乃流，陰行陽化，雨乃時應，火木同德，上應熒惑歲星，其穀丹蒼，其政嚴，其令擾。故風熱參布，雲物沸騰，太陰橫流，寒乃時至，涼雨並起。民病寒中，外發瘡瘍，內爲泄滿，故聖人遇之，和而不爭，往復之作，民病寒熱，痞泄，嘔暝，嘔吐，上怫，腫色變。初之氣，地氣遷，風勝乃搖，寒乃去，候乃大溫，草木早榮，寒來不殺，溫病乃起，其病氣怫於上，血溢目赤，欬逆頭痛，血崩

#### 5. 帶下

『素問·痿論篇』

思想無窮，所願不得，意淫於外，入房太甚，宗筋弛縱，發爲筋痿，及爲白淫。

『素問·骨空論篇』

任脈者，起於中樞之下，以上毛際，循腹裏，上關元，至咽喉，上頤循面入目。衝脈者，起於氣街，並少陰之經，俠脊上行，至陰中而散。任脈爲病，男子內結七疝，女子帶下瘕聚。衝脈爲病，逆氣裏急。

#### 6. 不妊

『素問·骨空論篇』

督脈爲病，脊強反折。督脈者，起於少腹，以下骨中央，女子入繫廷孔，其孔溺孔之端也，其絡循陰器，合纂間，繞纂後，別繞臀，至少陰與巨腸，中絡者，合少陰，上股內後廉，貫脊屬腎，與太陽起於目內眥，

上額交巔，上入絡腦，還出別下項，順肩髃內，俠脊抵腰中，入循脊絡腎。其男子循莖下至纂，與女子等。其少腹直上者，貫齊中央，上貫心，入喉上頤，環脣上繫兩目之下中央。此生病，從少腹上衝心而痛，不得前後，爲衝疝，其女子不孕，癯痔遺溺噎乾。督脈生病，治督脈，治在骨上，甚者在齊下營，

#### 7. 少腹痛

『素問·平人氣象論篇』

寸口脈沈而弱，曰寒熱及疝瘕少腹痛。

脈急者，曰疝瘕少腹痛

『素問·脈解篇』

厥陰所謂癩疝，婦人少腹腫者，厥陰者，辰也，三月陽中之陰，邪在中，故曰癩疝少腹腫也。所謂腰脊痛不可以俛仰者，三月一振榮華萬物，一俛而不仰也。所謂癩疝疝膚脹者，曰陰亦盛而脈脹不通，故曰癩疝疝也。所謂甚則噎乾熱中者，陰陽相薄而熱，故噎乾也

『素問·至真要大論篇』

岐伯曰：陽明司天，燥淫所勝，則木乃晚榮，草乃晚生，筋骨內變。民病左脇脇痛，寒清於中感而瘧，大涼革候，欬，腹中鳴，注泄，驚泄，名木斂生，苑于下，草焦上首，心脇暴痛，不可反側，噎乾，面塵腰痛，丈夫癩疝，婦人少腹痛 目昧眚，瘍瘡瘰癧，蟄蟲來見，病本于肝。太衝絕，死不治。

『靈樞·經脈』

肝足厥陰之脈，起於大指叢毛之際，上循足附上廉，去內踝一寸，上踝八寸，交出太陰之後，上膈入廉，循股陰，入毛中，過陰器，抵小腹，挾胃屬肝，絡膽，上貫膈，布脇肋，循喉嚨之後，上入頰頰，連目系，上出額，與督脈會於巔。其支者，從目系下頰裏，環脣內。其支者，復從肝，別貫膈，上注肺。是動則病腰痛不可以俛仰，丈夫瘕疝，婦人少腹腫，甚則噎乾，面塵，脫色。是主肝所生病者，胸滿，嘔逆，飧泄，狐疝，遺溺，閉癰。爲此諸病，盛則瀉之，虛

則補之，熱則疾之，寒則留之，陷下則灸之，不盛不虛，以經取之。盛者，寸口大一倍於人迎，虛者，寸口反小於人迎也。

### 8. 腸覃 石瘕

『靈樞·水脹』

腸覃何如。岐伯曰：寒氣客於腸外，與衛氣相搏，氣不得營，因有所繫，癖而內著，惡氣乃起，瘕肉乃生。其始生也，大如雞卵，稍以益大，至其成如懷子之狀，久者離歲，按之則堅，推之則移，月事以時下，此其候也。

石瘕何如。岐伯曰：石瘕生於胞中，寒氣客於子門，子門閉塞，氣不得通，惡血當瀉不瀉，衄以留止，日以益大，狀如懷子，月事不以時下，皆生於女子，可導而下。

### 9. 產後

『素問·通評虛實論篇』

帝曰：乳子而病熱，脈懸小者何如。岐伯曰：手足溫則生，寒則死。

帝曰：乳子中風熱，喘鳴肩息者，脈何如。岐伯曰：喘鳴肩息者，脈實大也。緩則生，急則死。

『靈樞·五禁』

黃帝曰：何謂五奪。岐伯曰：形肉已奪，是一奪也。大奪血之後，是二奪也。大汗出之後，是三奪也。大泄之後，是四奪也。新產及大血之後，是五奪也。此皆不可瀉。

### 10. 其他

『素問·玉版論要篇』

容色見上下左右，各在其要。其色見淺者，湯液主治，十日已。其見深者，必齊主治，二十一日已。其見大深者，醪酒主治，百日已。色天面脫，不治，百日盡已。脈短氣絕死，病溫虛甚死。色見上下左右，各在其要。上爲逆，下爲從，女子右爲逆，左爲從；

男子左爲逆，右爲從。易重陽死，重陰死。

『靈樞·五色』

各有部分，有部分，用陰和陽，用陽和陰，當明部分，萬舉萬當，能別左右，是謂大道，男女異位，故曰陰陽。審察澤夭，謂之良工。~ 男子色在於面王，爲小腹痛，下爲卵痛，其圓直爲莖痛，高爲本，下爲首，狐疝瘻陰之屬也。女子在於面王 爲膀胱子處之病，散爲痛，搏爲聚，方員左右，各如其色形。其隨而下至臍，爲淫，有潤如膏狀，爲暴食不潔。

『靈樞·五音五味』

黃帝曰：婦人無鬚者，無血氣乎。岐伯曰：衝脈任脈，皆起於胞中，上循背裏，爲經絡之海。其浮而外者，循腹右，上行會於咽喉，別而絡唇口，血氣盛則充膚熱肉，血獨盛則澹滲皮膚，生毫毛。今婦人之生，有餘於氣，不足於血，以其數脫血也。衝任之脈，不榮口脣，故鬚不生焉。

『素問·大奇論篇』

脈至如弦縷，是胞精不足也，病善言，下霜而死，不言可治。

## IV. 考察 및 結論

黃帝內經은 內經이라 簡稱하기도 하는데 東洋醫學에서 現存하는 最古의 醫書이다.<sup>5)</sup> 이는 中國의 전설적인 帝王 중 한사람인 皇帝가 岐伯을 비롯한 鬼臾區, 伯高, 少師, 雷公 등 여섯신하와 함께 問答을 통하여 의학의 이치를 밝히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다.<sup>6)</sup>

黃帝內經은 素問과 靈樞 두 부분을 포괄하고 있으며 黃帝內經의 著作年代는 현재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戰國에서 秦漢 사이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 어느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戰國에서 西漢에 이르기까지의 醫學을 모두 모은 것으로 그 내용은 매우 풍부하여 基本理論으로부터 疾病說明, 診斷, 治療, 養生,

鍼灸등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기재하고 있다. 특히 黃帝內經에 나타난 韓醫學 基本理論은 과거 의학이론의 總結일뿐만 아니라 이후 일천여년 韓醫學 이론의 準則이 되었다. 수천년동안 韓醫學 臨床에서 治療方法과 診斷 그리고 方劑 등은 많은 발전을 하였지만 韓醫學 理論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서는 黃帝內經의 規範을 넘지 못하고 있으니 오늘에 이르기까지 韓醫學에서 黃帝內經은 대단한 意義를 가지고 있다.<sup>5)</sup>

그러므로 黃帝內經에 나타난 婦人科의 내용을 考察하는 것이 韓方婦人科學의 文獻研究에서나 臨床에서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研究를 시행하게 되었다.

文獻	篇數	篇名(條文數)	條文
素問	16	上古天真論篇(1), 陰陽別論篇(2), 五藏別論篇(1), 玉版論要篇(1), 平人氣象論篇(2), 通評虛實論篇(1), 評熱病論篇(2), 腹中論篇(2), 痿論篇(1), 奇病論篇(2), 大奇論篇(1), 脈解篇(1), 骨空論篇(2), 六五常政大論篇(1), 元正紀大論篇(3), 至真要大論篇(1).	24
靈樞	8	邪氣藏府病形(1), 經脈(1), 熱病(1), 五色(1), 水脹(2), 五禁(1), 五音五味(1), 論疾診尺(1).	9

표 1. 부인과 내용이 실린 篇名과 條文數

黃帝內經에서 婦人科 내용이 실린 條文은 素問 16篇에서 24條文, 靈樞 8篇에서 9條文으로 총 24篇에서 33條文이 해당되었다.

六元正紀大論篇에 가장 많은 3條文이 있었고 『素問·陰陽別論篇·平人氣象論篇·評熱病論篇·腹中論篇·奇病論篇·骨空論篇』, 『靈樞·水脹』에서 2條文이 있었다.

內容	條文數
妊娠	9
無月經	6
少腹痛	4
崩漏	2*
帶下	2
生理	2
腸覃·石瘕	2
產後	2
不妊	1
其他	4

표 2. 內容分類와 해당 條文數

妊娠에 관한 條文이 9개로 가장 많았고 無月經, 少腹痛, 崩漏, 帶下, 生理, 腸覃·石瘕, 產後, 不妊順이었다.

各各의 條文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生理

『素問·上古天真論』<sup>2)</sup>에서 여자 7세에 腎氣가 왕성해지기 시작하여 치아가 영구치로 바뀌면서 모발이 길어지고 14세에 天癸가 이르러 任脈이 통하면서 太衝脈이 왕성해지기 시작하여 月經이 때에 맞게 나오므로 자식을 낳을 수 있으며 21세에 腎氣가 充滿되므로 사름니가 나오면서 成長이 극에 달하고 28세에 筋骨이 견고해지면서 모발이 극도로 자라고 신체가 풍만해지며 35세에 陽明脈이 상부에서 쇠약해져 얼굴이 다 초췌해지면서 머리카락이 세기 시작하며 49세에 任脈이 허약해지면서 太衝脈도 衰小해지고 天癸가 고갈되어 地道가 通하지 않으므로 형체가 쭈글쭈글해지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 하여 여자가 태어나서 죽을때까지의 생리적인 변화를 7이라는 수를 이용하여 서술하였다.

『素問·五藏別論』<sup>2)</sup>에서 胞는 地氣로부터 생긴 것인데 陰精을 저장하고 地氣를 본받았으므로 저장되 쏘아내지 않으니 奇恒之府라 부른다 하여 胞 즉 子宮에 대해 설명하였다.

## 2. 妊娠

妊娠時 脈에 대하여 『素問·平人氣象大論』<sup>2)</sup>과 『靈樞·論疾診尺』<sup>4)</sup>에서는 手少陰脈의 動이 심한 자를 妊娠脈이라 하였고 『素問·陰陽別論』<sup>2)</sup>에서는 陰搏陽別 즉 沈部에서 堅實하게 搏動하여 淺部の 박동과 구별되는 것을 妊娠脈이라 하였고 腹中論<sup>2)</sup>에 나오는 妊娠脈에 대한 해석은 註家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太素에서는 妊娠한 부인에게 병이 생기나 邪氣를 나타내는 맥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王冰은 經閉이나 마치 妊娠한 것처럼 邪脈이 없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類經에서는 妊娠時 몸이 병이 있는 것 같으나 邪脈이 없는 것은 胎兒가 있기 때문이지 병 때문은 아니라고 하여 차이를 보였다.

『素問·六元正紀大論』<sup>3)</sup>에서는 妊娠時 用藥의 원칙인 有故無損에 대해 나와 있는데 즉 妊娠했을지라도 약물을 사용할 까닭이 있으면 맹렬한 약물을 사용해도 임신부에게 손상이 없고 태아에게도 손상이 없더라고 하며 또한 큰 積聚에 맹렬할 약물을 사용하여 이기더라도 積聚가 반쯤 감소되면 중지해야지 지나치면 죽을 수 있다고 하였다.

『素問·奇病論』<sup>2)</sup>에서는 임신 9개월에 말을 못하는 것에 대한 原因, 病理機轉, 治法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임신하여 9개월에 말을 못하는 것은 子宮의 絡脈이 단절되었기 때문이며 絡脈은 臂에 연계되어 있는데 足少陰經이 舌本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다 하였고 특별히 治療하지 않아도 出產하면 회복되는데 오히려 泄利하면 고질병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素問·五常政大論』<sup>3)</sup>에서는 孕胎하고도 出產하지 못하는 원인을 그 해의 客氣를 주재하는 氣運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素問·六元正紀大論』<sup>3)</sup>에서는 太陽寒水의 司天이 지배적으로 작용할 때 마지막 客氣인 太陰濕土에는 孕胎해도 태아가 죽는다고 하여 運氣로 임신해도 출산하지 못하는 원인을 설명하였다.

『素問·奇病論』<sup>2)</sup>에서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癩疾證이 있는 경우는 胎病이라 하여 胎兒가 어머

니의 臍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크게 놀란 적이 있을 때 생긴다고 하여 임신시 攝生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쳐 병에까지 이르게 됨을 설명하였다.

## 3. 無月經

無月經을 일으키는 病因, 病理에 대해 『素問·陰陽別論』<sup>2)</sup>에서는 二陽 즉 陽明이 병이 들어 心脾에 이르면 不月에 이른다고 하였고 『素問·評熱病論』<sup>2)</sup>에서는 胞脈閉로 인해 月事不來가 온다고 하였는데 즉 胞脈은 心에 이어졌다가 胞中에 연락되는데 지금 水氣가 上逆하여 肺를 逼迫하기 때문에 心氣가 아래로 통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하였다. 또한 『素問·評熱病論』<sup>2)</sup>에서는 腎風일 때는 刺鍼하면 안되는데 刺鍼한 경우 月事不來가 올 수 있다고 하였다. 『靈樞·邪氣藏府病形』<sup>4)</sup>에서는 腎脈이 微澁한자는 不月에 이른다고 하였다.

『素問·腹中論』<sup>2)</sup>에서는 血枯證의 原因, 症狀, 治法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는데 나이가 어렸을 때 심하게 피를 흘린 적이 있거나 술에 취한채 性交하여 中氣가 枯渴되면 血枯가 생기는데 치료는 烏賊骨4 蘆茹1의 비율로 丸을 만들어 다섯알씩 식후에 복용토록 하였다.

『靈樞·熱病』<sup>4)</sup>에서는 女子如衄, 즉 月經不通일 때 湧泉穴을 취하여 內出시키고 발등 위 充血된 絡脈이 왕성한 곳을 전부 다 출혈시키라 하여 月經不通의 치료법을 제시하였는데 女子如衄에 대해 註家마다 의견이 달라 妊娠惡阻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또 相思病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 4. 崩漏

『素問·陰陽別論』<sup>2)</sup>에서는 崩漏의 脈診을 설명하고 있는데 深部の 拍動이 弱하면서 淺部는 堅實하게 搏動하는 것을 崩證이라 하였다.

『素問·六元正紀大論』<sup>3)</sup>에서는 司天이 少陽相火이고 中運이 太過되며 在天이 厥陰風木에 해당하는 丙申年에 少陰君火가 첫번째 客氣로 임할 때 氣가 上部에 鬱滯되어 血崩證이 생긴다고 하여

運氣로 血崩證의 원인을 설명하였다.

## 5. 帶下

『素問·痿論』<sup>2)</sup>에서 白淫의 原因에 대해 생각이 무궁하나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여 마음속으로 밖에서 음란한 짓을 하기 바라고 性交가 지나치게 심하여 宗筋이 이완될때 白淫證을 일으킨다고 하였는데 類經에서는 白淫을 帶濁이라 하여 帶下와 같이 보았다.

『素問·骨空論』<sup>3)</sup>에서는 任脈의 순환 경로를 설명하며 任脈이 병들면 女子는 帶下와 癥瘕, 積聚가 생긴다고 하여 帶下의 원인을 任脈이 병든 것으로 보았다.

## 6. 不妊

『素問·骨空論』<sup>3)</sup>에서 督脈의 순환경로를 설명하며 督脈에 병이 생기면 여자는 不妊症, 癯證, 痔疾, 遺尿症, 噎乾이 나타난다고 하여 督脈에 병이 든 길로 不妊의 원인을 설명하였다.

## 7. 少腹痛

『素問·平人氣象大論』<sup>2)</sup>에서는 寸口脈이 沈하면서 弱할 경우 또한 脈이 促急할 경우 疝瘕, 下腹痛이 있다 하여 疝瘕, 少腹痛의 脈診을 설명하였다.

『素問·脈解』<sup>3)</sup>과 『靈樞·經脈』<sup>4)</sup>에서는 足厥陰肝經의 是動病으로 婦人少腹重이 생긴다고 하였고 『素問·至眞要大論』<sup>3)</sup>에는 陽明燥金이 司天인 해에 婦人이 少腹痛, 目昧眥, 瘡瘍 瘰癧 등을 일으키는데 이는 肝에서 기인한다고 하여 肝經과 婦人少腹重痛과의 연관성을 설명하였다.

## 8. 腸覃·石瘕

『靈樞·水脹』<sup>4)</sup>에서는 腸覃과 石瘕의 原因, 症狀, 鑑別診斷, 治療方法 등을 설명하고 있는데

腸覃은 寒氣가 腸의 외부에 침입하여 衛氣와 上搏하여 氣가 영양을 공급할 수 없어 이로 인해 연계된 것에 累積 停滯되면서 惡氣가 발생하고 息肉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계란만 하다가 점점 커져 妊娠한 상태와 같아지며 이를 누르면 견고하나 밀면 이동하고 月經이 제때에 나온다 하였고 石瘕는 寒氣가 子門에 생기는 것으로 子門이 閉塞되어 氣가 通할 수 없어 惡血이 瀉下되지 않으면 피가 모여들고 나날이 커져 妊娠한 상태와 같으며 月經이 제때에 나오지 않는다 하였다,

## 9. 產後

『素問·通評虛實論』<sup>2)</sup>에서는 產後 熱病에 걸렸을때 豫候를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脈이 弱하면서 細小할 경우 손발이 따뜻하면 살고 한랭하면 죽는다 하였고 產後 風熱病에 걸려 喘息하면서 소리가 울리고 어깨를 들썩이면서 숨을 쉴 경우 脈勢가 實하면서 脈形은 大하는데 緩慢하면 살고 緊急하면 죽는다고 하였다.

『靈樞·五禁』<sup>4)</sup>에서는 產後에 出血을 많이 한 후는 五奪중의 하나로 寫해서는 안된다고 하여 산후 침치료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였다.

## 10. 其他

여자에 있어 얼굴을 望診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素問·玉版論』<sup>2)</sup>에서는 얼굴색이 여자는 右側이 逆症, 左側은 順症에 속한다 하였고 『靈樞·五色』<sup>4)</sup>에서는 여자는 色이 面王(鼻頭部)에 나타나면 膀胱과 子宮에 병이 든 것이니 흠어지면 통증을 일으키고 모이면 취증을 일으키며 색이 臍部에 이르면 白淫을 일으키고 지방과 같이 윤기가 있으면 갑자기 음식을 過食하여 不潔한 것을 下痢한다고 하였다.

『靈樞·五音五味』<sup>4)</sup>에서는 부인에게 수염이 나지 않는 까닭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부인은 자주 脫血하여 氣는 旺盛하나 血이 부족하여 衛脈과 任脈이 口唇部를 영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素問·大奇論』<sup>3)</sup>에서는 脈이 弦縷와 같으면 胞精의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병들어든 말을 잘 할 경우는 죽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는 치료할 수 있다 하여 胞精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맥상과 예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胞는 註家에 따라 心包로 보기도 하나 王冰과 類經에서는 胞를 子宮으로 보았다.

### 參考文獻

1. 洪元植譯, 校勘直解 黃帝內經素問, 傳統文化研究院, 1992; 5.
2. 金澐鎬, 李鍾馨 共譯, 注解補注 黃帝內經素問(上), 醫聖堂, 2001; 1, 14, 174, 184, 258, 308, 388~390, 400, 638, 724, 728, 834~836, 848, 910, 962~964, 982, 983.
3. 金澐鎬, 李鍾馨 共譯, 注解補注 黃帝內經素問(下), 醫聖堂, 2001; 22, 46, 180~182, 186, 558~562, 590, 612, 718, 828.
4. 金澐鎬 編譯, 注解補注 黃帝內經靈樞, 醫聖堂, 2002; 144, 273, 355, 616, 953, 1041, 1042, 1084, 1152.
5. 김동영, 황제내경 소문대해, 산해, 2002; 39.
6. 洪元植 編著,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1987; 40, 41.